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로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연혁소개실을 돌아보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여러차례 주시고 몸소 설계안도 보여주시였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야영소를 세상에 보란듯이 새로 건설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야영소를 일떠세워주시려고 마음쓰

신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칩실, 등산지식보급실, 소년단실, 문화선전실, 선물보관실, 음악실, 식당, 회관을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소년단원들의 야영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이 잘 먹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더 높아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를 돌아보신 다음 이곳 야영소를 새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야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룡문술공장과 새로 건설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룡문술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높은 산밭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골짜기에 아담하고 정갈하게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산뜻한감을 주는 구대를 보시고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위치도 좋고 공장을 정말 알뜰하게 잘 건설하였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용문술공장의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공장의 외부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건설하였다고, 마음에 든다고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이 공장처럼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룡문술공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육종장에서 한해에 새 품종의 염소들을 얼마나 받아낼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우리 나라의 기후후포도에 적응된 생활력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들을 많이 육종해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40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40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식당, 부식물창고, 공창고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직속중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원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관 강영순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로 건설한 군부대관사택들의 건설정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특사 중국체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특사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차수가 22일 특별비행기로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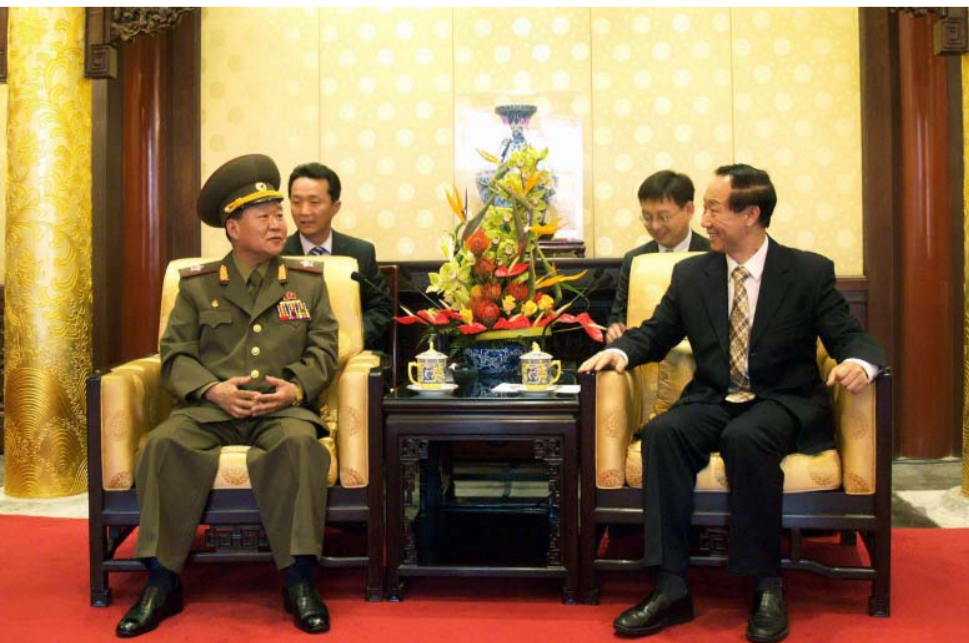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식당, 부식물창고, 공창고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 직속중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원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관 강영순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로 건설한 군부대관사택들의 건설정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관 강영순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로 건설한 군부대관사택들의 건설정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특별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특사와 일행을 현지에서 개발구 책임일군이 따듯이 맞이하였다. 청사 1층홀 중심의 대형전광판에는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글발이 현시되어있었다. 일행은 개발구의 연혁과 관리운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일으키시여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떨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코를 갖추는데서 체육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관심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체육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알리는 기쁜 소식들이 려이 전해지고있다.

올해에만도 지난 2월 김옥선수가 제14차 아시아 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양경일선수가 제51차 《단팔로브-니콜라이 베르토프》국제레스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3월에는 제6차 국제체조대명 기계체조도전경기대회에서 리세광선수가 우승을 하였다.

지난 4월에 진행된 2013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는 리수연, 박정주선수들이, 국제빙상연맹 2013년 세계발전직접은주로속도빙상경기대회에서 리지현, 김금향선수들이 금메달을, 홍콩선수들이 2013년 아시아 유술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경기에서 제1위를, 박영미, 황룡학선수들은 2013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었다.

제8차 아시아고예제조선선수권대회에서 정금화, 김해성선수들이 여자2인조형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런 속에서 얼마전에는 프랑스의 바리에에서 진행된 제52차 세계탁구(개별복)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공화국의 남녀선수들이 맞대선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제1위를 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용기를 안

겨주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제체육경기 성과들은 저절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온 나라에 전해지는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고 체육인들의 훈련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전에도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남자축구 결승경기를 관람하시고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 체육지도인들을 만나주시었다. 이날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이들의 경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려왔으며 주체조선의 영예를 힘있게 떨쳐가라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 고무를 안겨주시었다.

지난해 여러차례 친히 체육경기들을 보아주시고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만나시어서는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인들에게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 할 만하다.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선수들의 활짝기쁨을 친히 보아주시고

경기에서 우승하라고 좋은 기제도 마련해주도록 해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려 지날 수 있는 김옥선수의 경기성과를 보고받으시고는 그를 온 나라 체육인들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며 체육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고 국가적 인 방조를 강화할뿐 아니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일어나도록 하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5.1절을 맞으며 진행된 보건부분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보아주시고 양강도축구경기장과 청춘거리 체육촌을 돌아보시면서는 체육인들에게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경기장과 훈련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시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체육을 즐겨하여 집무시간 자기 나라 축구선수단의 월드컵경기장면을 보았다는 국가수반들도 더러 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가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는 물론 일반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들도 관심속에 지켜보아주시고 박수도 쳐주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인민야외빙상장과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최상의 수준으로 일떠세워주시고 여기에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체력을 단련하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해주셨으며 인민군인들의 기마훈련장을 인민들이 리용할 승마구락부로 개건하도록 하시기도 몸소 건설현장을 나오시어 세심한 지도를 주시는 그이의 각별한 관심속에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것이다.

곳곳에 꾸려진 배구장과 풍구장, 로카스케트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에서 심신을 단련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모습에서, 람홍색공화국을 세계의 창공높이 휘날릴 만만한 배를 채우고 훈련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체육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 체육강국을 우뚝 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상이 머지않은 앞날에 현실로 펼쳐질 것임을 확신하고있다.

국제사회가 칭송

국제사회는 사상과 령도, 인격과 덕망도, 배짱과 담력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을 열렬히 칭송하면서 그이를 모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기네스문 《호로야》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대수령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양보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계승완성하시려는 것은 김정은각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더욱 빛이 시였으며 천만군민을 선대수령들의 후훈관철에 불리 일으키셨다.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여 더 밝고 찬창한 조선의 미래

김정은령도자의 미소에는 인민을 따듯이 안아 사랑과 정을 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모가 어려웠다.

그이께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시어도 늘 밝은 미소를 보내신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만나시면 뜨겁게 포옹하고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고 걸으시는가 하면 인민들을 만나시어서는 불도 다 독여주시고 그들이 울리는 귀속 말도 들어주시다. 평범한 병사들, 인민들과 말을 끼고 함께 어울려 특색있는 기념사진도 찍으신다.

영국산전지연구협회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미소에는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강자의 배양이 담겨져있다.

그이께서 미국과 남조선이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있던 때에 호위함선도 없이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최내륙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여유작작한 영상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었다.

말레이시아 인디펜던트 페이퍼사장은 우리 나라 방문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은 태양이 꺼지지 않는 나라이다.

태양과도 같은 환한 미소와 우렁우렁한 울성까지 선대수령들 그대 로이시고 정력에 넘치신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시여 태양은 영원히 빛나고 조선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찬창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비범하고 숭고하신 최고사령관으로서 온 세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계신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그이의 연설은 세계를 진감시켰다.

세계언론들은 그이의 연설이 조선의 새 지도부의 정치강령이요 장

백년대계의 전략 - 승리의 진로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이 로선에는 위대한 개척자 김일성, 이오신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완성하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구현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발전 전략과 로선이 있다. 어떤 전략과 로선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전쟁과 민족자주위업발전의 합법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51(1962)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현명한 로선을 제시하시므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이렇듯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공화국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모든 문제를 주체적관점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

으로써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존엄떨치게 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궁지와 자부심이라고,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올수 있었다고 하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공화국이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던 때 장군님께서 더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일수 있게 한 필승의 보장이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권력강화에 선차적임을 부여 하심으로써 반제반미대결전과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현전련승을 안아 오시었다.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는 한결음을 걸어 도 주체적관점에서 자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가 천만민 정당하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한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어머니수령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마로 나아가는 것을 새로운 주체100년대

의 전략으로 제시하여 주시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지나온 백년사를 총화하신데 기초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백년대계의 전략, 이 진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이 땅의 평화를 지키실수 있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인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걸고 달려 날강도적인 《세계결미》라는 것을 려이 조작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키 리브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총동맹이 및 기 바쁘게 북조선동맹과 서해에서 북침불장난소동을 려이 벌여놓으며 공화국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더욱 우심해지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지난 3월경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어 반미전면대결전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세상에 자기 좋은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었다.

이것은 제재와 압박, 군사적협으로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무너트리려는 미국의 암살책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땅에 전체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잘사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안을 하루빨리 일떠세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은 뜻깊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의 진로, 새로운 병진로선이 있어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이 땅에 강성변영하는 통일조국을 강이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에 의해서 오늘도 빛을 잃지 않고있다.

그이러는 동명왕에 의하여 B.C. 277년에 세워진 후 근 천년 동안 동방의 군사강국으로서 자기의 위용을 떨쳤으며 우리 나라에서 통일국가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고구려의 과학과 기술역시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 중세문화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력사는 한 때 일부 사가들의 그릇된 견해와 인식으로 외곡되어 갔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의 하나로서 동명왕은 실재한 인물도 아니고 전설에 나오는 환상적인 인물이며 때문에 왕릉이 있을 수 없다는 꾀변을 내뿜었다. 동명왕을 실재한 인물로 보는 사학자들조차 평양에 그의 묘가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고구려력사를 과학적으로 고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

천 년 강국의 자취

63(1974)년 1월 력사학자들에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의뢰한데서도 조상의 유골을 가지고 오는데 시조왕을 신격화한 고구려사람들이 그의 묘를 버리고 도읍을 옮길수 없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에 따라 력사학자들이 동명왕릉과 그 일대를 발굴조사한 결과 벽화와 왕관의 흔적등이었던 금묘와 정릉사터에서 《릉사》, 《정릉》이라는 글자가 씌어진 절그릇조각이 발견됨으로써 동명왕의 진짜 무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소한의 땀과 추위로,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100여차례의 가르침을 주시며 동명왕릉을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손색없이 꾸리도록 하시었다.

민족의 력사와 우수한 문화유산이 길이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학술연

구로부터 통형성설계에 이르러까지 동명왕릉개건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리하여 동명왕릉은 천년강국의 시조왕답게 훌륭히 개건되어 주체82(1993)년 5월에는 준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왕릉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전하며 그이께서 쓴 수필 《東明王陵 改建 記念碑》(동명왕릉개건기념비)라는 친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력사학 민족적 전통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토양이라면 력사유적과 유물은 력사속에서 민족적 전통을 이어주는 재부이고 유산이다.

동명왕릉을 돌아본 한 재일동포력사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웅장하게 개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은 장구한 력사적기과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품치 수려한 대성산기술에 일떠선 평양민속공연에도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구체적인 보살핌이 깃들여있다.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민족의 력사와 아름다운 문화전이 이어대손손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본사기자 리경월



매혹과 흥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치방식은 지금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KBS》, 《MBC》, 《CBS》 방송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령도의 첫 자욱이 새겨진 조선인민군 군위 서술 류경수제105방포사단을 제일 먼저 찾으신데로써 선군정치로선에 변함이 없음을 내외에 천명하시었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정세 전문가들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령도 아래 북이 김일성주석탄생 100돌이 되는 해에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후훈을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리념을 계승한 정치》

빛나게 실현하였다고 격찬하였다.

《련합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을 분석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하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실 의지를 보여주시었다고 지적하였다.

잡지 《민족21》 편집기획 위원과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도 김정은제1위원장이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마로 나아가는데 대해 밝히심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여 선군정치를 이어가실 림장을 표명하시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상임 연구원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정치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계승의 정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계승성의 상징적표현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문과과담화, 연설들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풍부으로 들어가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영인한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실데 대한 결정,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 국방위원장의 동상 건립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현지지도중심의 활동방식도 주석과 국방위원장의 방식과 같은것을 비롯하여 김정은제1위원장의 정치철학이나 로선, 주요 활동방식

은 모두 선대수령들과 동일하다.

인터넷신문 《자유민보》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 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활동을 보면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100% 정확히 계승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

주석께서 찾아주시고 국방위원장에서 가꾸어주시는 조국산천을 더 잘 관리할데 대해 가르치신 담화, 민정대, 유희장에서 직접 잡초까지 뽑으시며 일꾼들을 깨우쳐주시는 이야기 등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오도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실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한 인터넷 언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세계 《최강》이라

고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전,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있는 남북관계 등에서 어떤 전략과 기술을 구사하실것인가는 불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 《동북아의 문》은 북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지휘봉을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이어받으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아르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하여 펼쳐질것이라는 것이 내외정론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전 소련의 붕괴 후에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미국과 당당히 대결하시었던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정치 리념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그대로 계승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 조선과의 친선협회 준비위원회가 13일 에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 결성되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요 데 베노스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

조선과의 친선협회 준비위원회가 13일 에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 결성되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요 데 베노스

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인터넷특별페이지를 개설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조국해방전쟁에서

의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편집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협회 산하부들의 주체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얼토당토않은 《국제화》소리

지난 14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지대로 앞으로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음날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남북이 하는것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같이 참여해 문제를 풀고 평화적으로 가는데 힘을 합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며 개성공업지구를 《국제화》하라는 지도를 드러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는 개성공업지구사태를 놓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려하고있는 때에 나오는 이러한 발언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수 없다.

개성공업지구를 《국제화》하겠다고는 사실에 있어서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낳은 옥동자이며 민족화해와 협력사업의 상징이다. 착공된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개성공업지구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마음과 열렬한 지지

에 공동번영의 동음을 새차게 울려왔다. 개성공업지구의 탄생과 그 발전의 전과정을 판통하고있는 기초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다. 다시말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공동선언의 사상이 그대로 북남경제협력사업에 구현되어 열매를 맺은것이 개성공업지구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제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와 통일의 주춧돌이 마련되며 나아가서 통일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귀중한 경험과 재부가 창조되어온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무슨 《국제화》를 운운하는것은 순수한 민족내부사업, 민족경제협력사업으로서의 개성공업지구의 성격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며 민족에 대한 우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는 집권하기 전부터 지난 시기 북남사이의 약속을 존중

하고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기회에 표명했었다. 거기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해문제로 들어있던것으로 모두가 기억하고있다. 그 공동선언의 어느 문구에 북과 남사이의 협력을 《국제화》하겠다는 표현이 있는가.

남측당국은 썩하면 《국제화》라는 말을 즐겨 입에 올리곤 한다. 경제도 세계화, 결혼도 국제화, 생애환경보호를 위한 공민도 국제화, 반공화국《인권》소송도 국제화, 남북제재해움도 국제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사업도 국제화하겠다는것인가. 국제화할것이 따로 있고 민족내부사업이 따로 있는 법이다.

6.15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끼리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되어있는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도전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압살을 노린 불순한 제재와 대결, 북침전쟁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현시기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공조, 반통일공조에 다름이 아

니다. 개성공업지구가 오늘과 같은 폐쇄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보수당국에 책임이 있다. 그들이 동족의 너무도 정당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자하행시습을 끌고들며 미국과 야합하여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지 않았던들 리명박 5년간에도 정상운영된 개성공업지구가 지금과 같이 되었겠는가.

개성공업지구사태를 초래하고도 자그마한 죄의식이 없이 남의탓만 늘어놓으며 거기에 한술 더 떠 공업지구를 《국제화》하겠다는니 뭐니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의식의 산물이며 새로운 차단을 만들어 민족경제협력사업을 영영 막아버리려는 술수가 아니라 고 말할수 있겠는가.

남측당국이 조금이라도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할 마음이 있다면 허황한 억지주장을 버리고 사태의 근본원인을 바로 찾고 해결하는 길에있는 행동을 취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된다.

김철민

금강산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5대명산》, 《조선팔경》, 《3신산》의 하나로 알려져있는 명승지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을 한번 보는것이 소원이 라고 할 정도로 금강산은 세계의 명승으로도 알려졌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금강산이 우리 민족뿐아니라 세인의 이목을 받았던것은 비단 명승때만이 아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6.15의 옥동자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전취물인 금강산관광패문이었다.

그런 금강산이 남조선의 리명박 《정권》에 의해 우릉당하였다.

2008년 7월 남측관광객의 불찰에 의한 금강산관광객사건이 발생하였다.

북측은 즉시 유감표명과 그 진상에 대한 해명을 하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법하게 풀어주고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해 주었다.

그러나 리명박 《정권》은 그 사건을 동족대결과 6.15죽이기의 구실로 삼았다.

금강산관광을 《돈줄》이니, 《피주기》니 하며 동족의 존엄을 모독하는 꾀변이 튀어나오고 이미 결말이 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 가솔빠구기소리같은 널부러외워왔다.

끝내는 북측의 대화제에도 차던지며 금강산관광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금강산의 사계절은 변함없이 건만 리명박 《정권》이 돌아온 동족대결의 칼바람은 오

늘도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남겨놓고있다.

지금 폐쇄적인 이른 개성공업지구의 사태를 주시해 보면 남조선의 현 《정권》 역시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리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돈줄》이니, 《밭줄》이니 하는 도발적인 악담이 현 《정권》 하에서 공공연히 튀어나오고있으며 동족에게 책임전가를 위해 들고나온 《재발방지》나 《신변안전보장》 요구같은것도 그대로 되풀이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유엔 《제재》와 결부시키는것만 보아도 리명박 《정권》의 못된 속심과 대로이다.

그것도 모자라 개성공업지구의 《국제화》라는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를 내뱉고

하기는 그 무슨 《인질역류사태》라는 여론을 내들리며 미군특공대를 개성공업지구에 들이밀었다고 한 대결병화자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인들 나오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같은 민족경제협력사업도 동족대결의 무대로 만드는데서 리명박 《정권》과 현 남조선 《정권》은 한치의 차이가 없다는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가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 남조선의 보수 《정권》에 의해 말살되고있는 비극적현실은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당국에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오들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문제는 조선반도 핵위협은 주범인 미국과 그에 추종해나선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며 공화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강도적본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북침전쟁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올해에 들어서서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광풍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지난 3월부터 두 달동안에 걸쳐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은 당당한 핵보유국인 공화국을 비핵국가로 변신시킬것을 추구하는 최악의 핵공갈책동이었다. 호전세력들은 5월초에도 조선동해에서 연합상륙훈련을, 조선서해 백령도와 그 주변해

상에서는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지난 6일부터는 조선시해일대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 직승기 등을 동원하여 연합반잠수함 연을 올렸다. 얼마전에 조선동해에서 미국의 초대형핵항공모함 《니미즈》호와 이지스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으로 구성된 항공모함타격집단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으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연합해상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였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침략과 지배를 피하는 미국의 핵전쟁기 술련마장, 첨단대량살륙무기시험장으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세계적으로 남조선에서처럼 미국의 무력배비도 가 높고 강도높은 전쟁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호전세력들은 저들의 혼련이 《내력적》인것이라는니,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라느니 하고 광고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워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초보적인 군사상식에도 보아도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며 공공연한 전쟁준비책동이다. 특히 침략적성격을 띤 전쟁연습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을 방지할만 한 제도와 장치들은 파괴되고있다. 사소한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하에서 내외호전세력들이 핵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광신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수 없는것이다.

최근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린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궁극적목적으로 한 대조선정책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미국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화국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이루어 보자는것이다.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책동은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핵전쟁도발의 장본인인 다음아닌 그들 자신이라느니 하는 날날이 고발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언제 가도 해소될수 없다.

본사기자 윤현주

단평: 사실오도의 주범

남조선의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20일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북의 주장은 현재의 사실을 오도하는것》이라고 뇌까렸다고 한다.

백주에 검은것을 회다고 하는 히틀러시대 《켄펠스》식 강도적주장이 아닐수 없다. 폐쇄적인 이른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주범이 누군데 도대체 누구더라 사실을 오도하고있다고 혼시절하는가.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그 장단에 춤추는 보수언론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첫발을 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 정상운영과 발전에 제동을 걸면서 꼬요에 남뱃해나섰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현 집권자가 도저히 방대할수 없는 하루동안의 시한부를 정해놓고 부랴부랴 개성공업지구 남측인원들을 철수시킨것, 《안전장치》요, 《국제화》요 하면서 민족공동의 전취물을 감히 《국제화》하고 《제안》한것, 미국에까지 찾아가 개성공업지구사태에 대한 상건의 그 무슨 《지지》를 구걸한것 등은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애당초 개성공업지구사태를 바로잡는데 관심이 없다. 있다면 그것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써먹자는 속심뿐이다. 이런자들이야말로 갈데없는 사실오도의 주범이다.

한영수

지난 16일 남조선의 《오마이뉴스》가 《국민이 뽑고 미국이 쓰는 《한국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같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유권자들을 끌어당겨 아슬아슬한 싸움에서 겨우 이긴 《대통령》이 그 공약때문에 움짱딱딱 움직이지 못하고 당선후 5개월을 《량타리치기》 전략으로 버리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면서 글은 집권자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면서 민심을 거역하는데로 나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대기업이라고 벌을 주는 식으로 때리거나 옥죄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경질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

남조선의 민주민생 평화통일추진연대가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판약경찰서가 17일 이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집앞에서 시위투쟁을 벌린 청년에게 러무수없는 혐의를 들씌워 긴급체포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원세훈이 정보원의 불법정

제를 75분동안 통역을 해가며 한 주재당 10분이내로 토론하고 합의했다.

《한》씨는 《자유, 시장경제원칙》은 자본주의체제를 말하며 그에 적합한 《평화통일》은 《흡수통일》을 뜻한다.

이것은 리명박시기의 《〈한〉 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완전히 일치한다.

《흡수통일》합의는 당국자가 공언해온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해동 그가 그토록 중시하는 《신뢰》를 파괴한것이다.

오바마는 《북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끝났다.》고 말하였고 당국자는 《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북의 3차력시행》과 《미사일도발》에 이어 《개성공업지구》를 지목하였다. 이는 개성

공업지구를 박살내는 순간이었다.

개성공업지구가 사실상 폐쇄상황임에도 모든 언론은 그 운명에 대한 예측을 《〈한〉 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는 판결이 났다. 오바마가 《북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끝났다.》고 말하였고 당국자는 《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북의 3차력시행》과 《미사일도발》에 이어 《개성공업지구》를 지목하였다. 이는 개성

리 민족이었다. 바다를 건너 온 침략자들의 함포악에 화승총으로박아 맞살수 없었던 어제날의 약소민족, 약소국가가 이제는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미국도 《가장 두려운 상대》라고 하며 감히 범접을 못하고 제국주의의 압력과 《제재》가 추호도 통할수 없는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로 되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온 70년동안이나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분열은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 장애로 되고있으며 침략적인 외세와 그 주구들을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가하는데 악용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핵무기를 끌어들이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은 우리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민약 공화국이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았던면 이 땅에서 핵전쟁은 열백번 일어났고도 남았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수십년의 병력과 최신공학수단들을 동원하여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실제로 번번히 있었는것은 전적으로 공화국에 침략세력의 어떤 군사적도발도 단호히 짓부של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이 침략자들과 그 본거지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던 핵무기로 정밀 타격할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기에 횡포무도한 침략세력들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광위력한 핵무력에 조신반도의 평화도 있고 민족의 부강번영과 행복한 삶도 있다. 공화국의 핵이야말로 민족의 힘이며 통일조국의 통일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보물이다.

지금 온 겨레는 세계 최대 열점지역에서 어떻게 되어 그 저주로운 핵바섯구름이 치솟지 않으며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어떻게 겨레 모두의 운명을 구원하고있는가를 직접 현실로 체험하고 있다.

이렇듯 겨레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주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 겨레의 한결같은 칭송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할것이다. 공화국이 존엄높은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은 민족의 패기를 두고 리명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민족성이라면 마땅히 기뻐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재보이며 자랑인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생명으로, 국보로 간직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발전진로의 기치따라 이 땅에 통일대국을 거머쥐어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진광혁

조선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최후승리의 보검

여러 나라 인사들이 강조

이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핵 위협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강위력한 핵무력건설에 토대하여 경제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발전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것은 정당한 선택으로 된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나이제리아 반공화국 전 국총상인 부의장은 김정은원수각하께서 제시하신 병리론은 조선인민

시비할수 없는 당당한 자위권행사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하였다.

미제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의 자위적조치는 더욱 강해질것이다.

조선인민은 핵무기보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받는 조선은 강력한 자위의 성사로 빛날것이다.

벨라루스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신것은 특출한 정치실력의 뚜렷한 파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밑에 조선인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 하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핵보유는 누구도 위협적이라고 단죄할수 없다. 불법행위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탄압으로 대응하는 당국은 독재 《정권》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이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세훈을 구속해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한》의 공동운명을 가능케 하였다.》고 한 발언을 뒤집으면 《〈한국의〉 MD(미

씨일방어체계)가 있으면 《한》이 가입하면 북의 핵과 미사일능력강화, 다른 지역국의 극단적인 정치, 경제적보복 등으로 이어져다 그래서 리명박차도 주저하는 현 당국자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오바마의 《전략적내대》에 《빛의》(명문이 옮겨불다는 뜻)하는 순간이 된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완전히

말려드는 시각이었다.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한〉 미동맹의 중요성》,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재확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 공동대처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리행 등 7~8개나 되는 큰 주

본사기자

《핵무기없는 세상》과 조선반도비핵화

《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없는 세상〉을 〈한〉반도에서 먼저 실현하겠다.》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가 국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한 말이다.

한마디로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것으로부터 세계비핵화의 첫 폭질을 때렸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 들은 소리는 아니다. 언젠가 미국대통령도 이런 소리를 했다. 남조선집권자가 미국에 가서 그 말을 영무세처럼 되받아왔었다.

얼핏 듣기에는 요란해보이는데 따지고보면 세계의 비핵화를 이루는 순차,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천진관만 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핵무기없는 세상》을 제창한것은 미국이다. 물론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자체를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는것이 진정한 핵무기없는 세상인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미국의 행세는 핵무기보유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류사상 처음에도 핵무기를 만든 미국은 그것을 휘둘러 미국중심의 유엔을 축으로 한 세계질서를 만들어내고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실현을 위한 침략과 전

황을 일삼아왔다. 미국의 세계지배는 본질에 있어서 핵무기독점에 기초한 것이며 바로 이 핵무기의 절대적인 우위를 믿고 미국은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마구 억누르며 자기의 침략적요구를 강요해왔다. 침략과 간섭, 전쟁을 생리로 하는 미제국주의에 있어서 핵무기야말로 없애서는 안되는 생존수단, 지배수단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이런 미국이 핵을 《포기》하였다는것은 세계지배야망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약탈과 간섭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 이것이 과연 일출수 있는 일인가.

승상이 양으로 변할수 없다. 미국은 핵을 포기할수 없고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수요이상으로 엄청난 나케 많아 관리하는데만도 거액의 돈이 드는 핵무기교를 감축하면 했지 절대로 없애겠다고 나설수 없다는 것이다.

하더라면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상》 구상은?

그것은 한자 사랑발림의 눈속임수이다. 핵무기들을 철폐하는척하면서 자기 나라 핵무기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들을 없애버리려는 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하여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는것이다.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상을 조선반도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떠드는것도 따지고보면 공화국의 핵이 침략과 살륙을 피하는 미국에 제일 위협으로 되기때문이다. 핵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는가에 따라 재난의 핵으로 될수 있고 또는 그 반대로 될수 있다. 아메리카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 침략과 전쟁으로 살찌는 그 《초대륙》이, 지금껏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세계곳곳에서 전쟁을 무기로 일삼아오면서 그 자국영토에는 단 한발의 포탄도 떨어지지 않아 전쟁을 말그대로 기쁨과 쾌락으로 여겨는 그 미국이 자기도 핵발바다에 잠겼수 있다는 공포감을 사로잡혀본적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 미국이 그 공포를 한껏 느끼고있다. 그것이 선군조선의 핵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예의 한것이다.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상》 구상은 바로 조선의 핵보유로 하여 허물어진 미국의 핵독점지위를 다시 되살리고 세계를 미국에 안전하게 되살리겠다는것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없애버리기 위해 그토록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도 이때문이다.

그런즉 세계의 비핵화는 어디서부

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주장해온 공화국이 끝내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도 수십년간 같은 핵위협공갈을 가해온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떠드는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이다.

미국이 비핵화되어야 세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것은 엄연한 과학적리치이고 정의와 양심, 시대와 력사가 내리는 판단이다.

남조선의 집권자는 자기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금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오바마대통령의 〈핵무기없는 세상〉을 〈한〉반도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한 발언이 미국의 지배주의적인 리익에 부합되는것인지, 조선민족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인지, 공화국의 보유한 핵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대대손손 굳건히 지켜나가며 통일조국의 통일변역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통의 귀중한 재부이다.

민족의 존엄이고 생명인 정의의 핵을 없애버리겠다는것은 결국 자기 민족자신을 해치려드는 매국행위이다.

인권유린자들의 《인권》라령

남조선보수패당이 《북인권》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지난 20일 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그 무슨 《국제세미나》라는데서 《북인권법제정》과 《북인권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운운한것이 그렇다.

류길재의 말방은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에 《인권문제》라는데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다니는것은 공화국을 깎아내리고 고립압박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교안해낸 반공화국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사상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

이런 속에서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약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기는 고사하고 있지도 않는 《북인권》을 떠들어대는것을 보면 그 역시 선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결의식이 팔수에 찬 대결광신자라라는것을 알수 있다.

오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얼마전 리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

장 박인순을 모해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원의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문건에는 박인순 서울시장의 활동을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에 해를주는 《좌편향》적인것으로 몰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제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정보원이 《반값등록금》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야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을 《좌파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려 궁공이를 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이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합법적활동을 위한 정치사찰로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로 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대양건너 멀리 미국땅에 가서까지 동포녀성을 회포하여 국제적당신을 초래한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법제정》이니, 《기본계획수립》이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보수패당이 저들의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들은 당반수에 올려놓고 《북인권》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봐야 거기에 커기울일 사람은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인권》을 떠들면 떠들수록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낼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박철남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광주인민봉기 33주년과 관련한 기념식이 있었다.

그런데 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광주인민봉기자들의 넋을 기념하는 이 행사를 둘러싸고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사이의 대립이 이변처럼 첨예하게 이루어진적이 없었다.

행사전부터 남조선당국은 보존처를 내세워 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을 담긴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며 행사당일에는 이 노래가 제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선정되어 각계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결과 행사는 이 행사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광주민주화운동단체들이 빠진 가운데 초라한 《반쪽짜리》 행사로 되고말았다.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격분케 하고있는것은 광주인민봉

기의 력사적의의와 민주화정신의 외곡말살하려는 극우보수세력의 악랄한 책동이다.

보수성향의 어느 한 TV방송은 광주인민봉기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계릴라전을 벌리며 광주시민을 선동했다.》는 모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내었는데 하

기야양인사들은 공식성명을 통해 《5.18역사시공의도를 넘어섰다.》, 《5.18민주화정신세승과 력사의곡기도는 국가강문사건이다. 엄중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5.18역사외곡대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수단

과 야양인사들은 공식성명을 통해 《5.18역사시공의도를 넘어섰다.》, 《5.18민주화정신세승과 력사의곡기도는 국가강문사건이다. 엄중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5.18역사외곡대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수단

의 피어린 민주화를 위한 진통과 고귀한 전취물을 송두리채 말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주적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집권전부터 력사를 외곡하면서 과거의 군부독재통치를 미화하고 찬양하였다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권력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은 군부독재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적인 새 체도를 수립하기 위해 목숨바친 5.18항쟁렬사들의 투쟁정신을 외곡말살하려는 무지막직한 재변으로, 폭거로 드러났었다.

현 보수집권세력이 력대 남조선 《정권》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정의로운 광주인민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을 모독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유신》독재부활에도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이 념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밖으로는 사대, 안으로는 독재를 일삼는 매국세력이 있는 한 이는 오직 반과조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5월의 광주는 력사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은 군부독재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적인 새 체도를 수립하기 위해 목숨바친 5.18항쟁렬사들의 투쟁정신을 외곡말살하려는 무지막직한 재변으로, 폭거로 드러났었다.

현 보수집권세력이 력대 남조선 《정권》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정의로운 광주인민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을 모독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유신》독재부활에도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이 념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밖으로는 사대, 안으로는 독재를 일삼는 매국세력이 있는 한 이는 오직 반과조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5월의 광주는 력사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당국의 반인민적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수난당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

지난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만에 현 남조선당국자가 여기에 참가한다고 보수집권세력이 의미를 부여했지만 행사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5.18유족회측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지 않아 결국 《국인없는 행사》로 되었던것이다.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은 그들은 광주인민봉기자의 넋이 어린 망월동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그들이 행사가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끝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전두환군부독재 《정권》을 뒤집어엎고 민주주의 새봄을 기어오 안아오려는 광주인민봉기자들의 념원을 담은 노래이다.

하기에 이 노래는 항쟁렬사들의 넋을 이어가려는 념원 밑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려지게 되었고

기야양인사들은 공식성명을 통해 《5.18역사시공의도를 넘어섰다.》, 《5.18민주화정신세승과 력사의곡기도는 국가강문사건이다. 엄중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5.18역사외곡대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수단

과 야양인사들은 공식성명을 통해 《5.18역사시공의도를 넘어섰다.》, 《5.18민주화정신세승과 력사의곡기도는 국가강문사건이다. 엄중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5.18역사외곡대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수단

의 피어린 민주화를 위한 진통과 고귀한 전취물을 송두리채 말살하려는 극악한 반민주적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집권전부터 력사를 외곡하면서 과거의 군부독재통치를 미화하고 찬양하였다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권력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은 군부독재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적인 새 체도를 수립하기 위해 목숨바친 5.18항쟁렬사들의 투쟁정신을 외곡말살하려는 무지막직한 재변으로, 폭거로 드러났었다.

현 보수집권세력이 력대 남조선 《정권》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정의로운 광주인민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을 모독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유신》독재부활에도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이 념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밖으로는 사대, 안으로는 독재를 일삼는 매국세력이 있는 한 이는 오직 반과조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5월의 광주는 력사의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남조선노동자들 광주에서 투쟁 전개

5.18광주인민봉기 33돐을 계기로 남조선전지역의 노동자들이 17일 광주에서 대규모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로총 산별련맹, 각 지역본부 대표들과 소수 노동자들은 광주봉기를 모독하고 짓밟는 당국에 대한 분노를 리프리며 망월동묘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리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권》도 광주봉기의 본질을 외곡하고 봉기자들의 념원을 말살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특히 《정부》가 보훈처를 앞세워 5.18기념행사에서 봉기자들의 투쟁정신을 담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력사에 5월의 광주를 지워버리려는 외곡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어 그들은 광주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5월학살 배후조종 미국놈들 몰아내

정보원의 추악한 실체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의 정치개입사건수가 심화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보인이 또다시 드러나 심각한 정치적문제에 확대되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겨레》 신문이 리명박 《정권》 당시 서울시장 박인순을 모해하기 위해 꾸민 정보원의 내부문건을 공개하였다.

문건에는 박인순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세금징수 확대, 시립대등록금 대폭인하 등 파편향, 독선적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권세력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강구 필요》라고 작성배경을 밝힌 뒤 박인순시장 등 야권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면에 산집행실태 철저히 점검》, 《여당수상 시의원들의 시에 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등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하여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있다.

《박인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이 드러나는데 이어 정보원이 《반값등록금운동 차단공작》에도 개입한 사실이 련이어 추가문건으로 공개되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겨레》가 공개한 정보원의 《좌파의 등록금주장 허구성전파로 파상 공세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야당이 들고나오는 《반값등록금》요구가 진실성이 없는것으로서 당국은 이를 좌파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선》당시 폭넓은 남조선인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당의 《반값등록금》문제를 약화하여 진보단체들을 좌파세력으로 몰아 탄압해야 한다는것이 정보원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정보원이 조직적인 여론 조작행위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온 남조선정부를 총격에 빠뜨린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드러난 정보원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원의 즉각적인 해체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보수집권세력의 손발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좌파와 모략으로 남조선사회를 민주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무시무시한 암흑사회로 만든 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서희



대결 독초

《(정쟁당시) (위안부)는 필요했다.》

치명리는 이 망언이 최근 일본의 당당한 정치인이자 자처하는 하시모토 외상이자 장 정 일본사회회 공동대표의 입에서 튀어나와 커다란 국제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수십만여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해한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이다. 하기에 온 세계가 이를 규탄하며 그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더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과거범죄를 외곡, 정당화하는 게놈들이, 그것도 일본정계에서 량량 튀어나오고 있으니 실로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하시모토의 망발과파문이 급격히 확대되어 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얼마전에 일본내 《극우원조》격인 이시하라 신파로 일본유

일본의 정치는 어디로?

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정당화》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식선언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유신회의 중의원 의원이었던 니시무라는 《(위안부)가 성노예로 외곡됐다》며 과거 일본의 침략사를 합리화하고 아직도 아물지 않고있는 피해여성들의 마음속상처에 칼질을 해대는 패륜아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그로 말하면 2005년에 변호사법위반을 저질렀고 이에 앞서 1999년에는 일본행위자를 주장하며 있어 심심치 않게 여론의 비난을 받고있는 인물이다. 정치인의 체모조차 갖추지 못한자들이 정계에 들고있으며 과거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하고있으니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인식이 《철폐》, 《파렴치》로 공인될

정치는 어디로?

일본수상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기도를 드러내었다가 여론의 포탄을 맞은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세계가 인정하든 안하든 저들의 정도도 사과를 해놓고는 뒤돌아앉아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있는 형편이다.

지난 19일 《(일본) 국가적으로 (너성음) 폭행, 협박, 암치하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무리하게 (위안부)를 강요해 성노예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과 다르다.》며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고노담화수정을 요구했고 오는 27일 일본의 극우파인협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한것이 단적실례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정객들의 망언들이 현 집권자의 본을 떼었기

일본수상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기도를 드러내었다가 여론의 포탄을 맞은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세계가 인정하든 안하든 저들의 정도도 사과를 해놓고는 뒤돌아앉아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있는 형편이다.

지난 19일 《(일본) 국가적으로 (너성음) 폭행, 협박, 암치하고 싶어하는 여성에게 무리하게 (위안부)를 강요해 성노예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과 다르다.》며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고노담화수정을 요구했고 오는 27일 일본의 극우파인협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한것이 단적실례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정객들의 망언들이 현 집권자의 본을 떼었기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리광성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친 공화국의 탁구선수들

조선선수들 우승컵을 김정은령도자께 드리다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보도

얼마전 프랑스의 파리에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승리의 소식은 전해져왔다.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혼성복식경기)에 출전한 공화국의 김혁봉, 김정선 선수들이 맞대결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이번의 승리는 공화국인민들에게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이며 세계탁구녀왕인 박영순선수가 우승하였을 때와 같은 승리의 기쁨과 커다란 민족적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번의 승리는 공화국인민들에게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이며 세계탁구녀왕인 박영순선수가 우승하였을 때와 같은 승리의 기쁨과 커다란 민족적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번의 승리는 공화국인민들에게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이며 세계탁구녀왕인 박영순선수가 우승하였을 때와 같은 승리의 기쁨과 커다란 민족적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번의 승리는 공화국인민들에게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이며 세계탁구녀왕인 박영순선수가 우승하였을 때와 같은 승리의 기쁨과 커다란 민족적기쁨을 안겨주었다.

4월 영국의 버밍엄에서 열린 제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개인단식경기에서 진출하여 또다시 영예의 1등을 하여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로 되어 온 나라 인민, 세계가 다 아는 인물로 되었다. 그때로부터 36년만에 공화국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을 따낸 것이다.

이번에 국제체육무대에 서 공화국이 거둔 혁혁한 성과는 결코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나라에 세차게 일고있는 체육열풍의 산물이며 체육강국 건설에서 또 한번 큰 걸음을 내딛은 빛나는 성과이다.

체육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는 데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체육강국을 건설할 야심찬 목표로 내세우고 전사회적으로 체육을 장려하고 성과를 거둔 체육인들을 적극 내세워 주고있다. 지난해말에는 나

라의 체육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맡아수행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내오는 등 체육발전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 인민들이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데서 체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부문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계신다. 조선반도 주변에 정세가 극도로 긴장한 지난 몇달동안에도 원수님께서 청춘거리 체육촌과 양각도축구경기장을 돌아보시고 전문선수들과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들을 몸소 관람하시였으며 최근 국제경기장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 주시었다.

올해에 들어와 김금옥, 양경일, 리세광, 황룡학, 박영미, 홍국현, 리수연, 권

용광, 박정주선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뛰어난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공화국의 체육중시열풍이 안아온 팔복할만 한 성과이다.

이번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혁봉, 김정선 선수들은 오늘의 이 승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우리 인민에게 드리고싶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의 모든 체육인들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영상을 언제나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국제무대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하여 오늘의 승리를 래일에도 이어갈 결의와 확신에 넘쳐있다.

세계탁구강자들을 낳은 공화국은 지금 민족의 영웅들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로 떠들썩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금일

공화국의 김혁봉, 김정선 선수들이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을 19일과 20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신광망은 《조선선수들 우승컵을 김정은령도자께 드리다: 우승의 시각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탁구련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 결승경기에서 조선의 김혁봉, 김정선 선수들이 특출한 실력을 발휘하여 남조선선수들을 4:2로 이기고 대회의 첫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결승경기후 기자회견장소는 50명정도의 기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것으로 하여 들끓었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선수들이 출전한 결승경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소감에 대한 물음에 조선선수들은 《오늘의 이 승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우리 인민에게 드리고싶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수 있다고 굳게 믿

었다. 여기로 떠나올 때 많은 평양시민들이 우리를 배례주었다. 우리는 우승한 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한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파리에서 진행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 결승경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들이 남조선 선수들을 라승하고 역사적인 우승을 함으로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 선수권에 대한 중국의 독점을 끝장냈다.

조선의 김혁봉, 김정선 선수는 남조선의 리상수, 박영순 선수조에 비해 너무도 훌륭하였다.

조선의 예극가가 주악되고 김정선 선수가 두볼을 눈물로 적실 때 이번 우승이 가지는 의의가 강력히 안겨졌다.

그의 눈물은 체육관에 있는 전체 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정선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모두의 기대에 보답하였다고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저절로 쏟아져나왔다》고 말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금메달을 수여받은 김혁봉, 김정선 선수들

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선수들은 중국 홍콩 선수들과의 준결승경기에서 완강한 투지와 높은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세계탁구계 탁구에호가들의 대열찬을 받았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조선 선수들은 지난 선수권대회에서 전적이 있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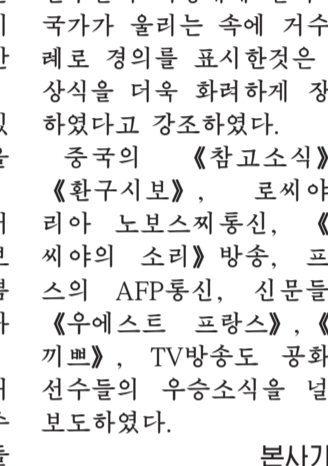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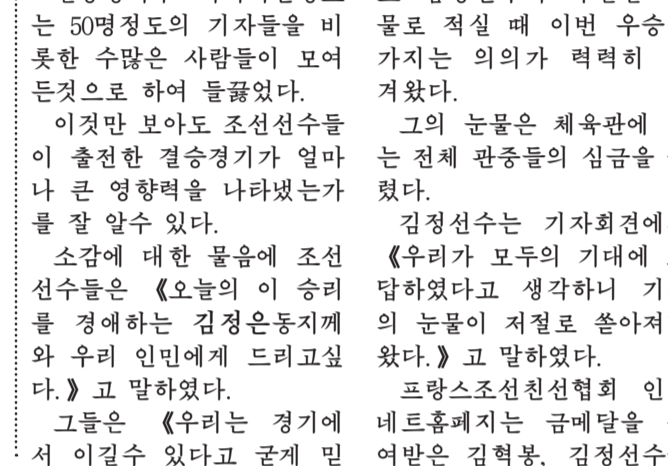
체육애호가들은 일치하게 결승경기를 보면서 조선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였다.

로세야탁구련맹 인터넷홈페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제목으로 조선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 울리는 속에 거수경례로 경의를 표시한것은 시상식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환기소보》, 로세야의 리아 노보스뜨리나, 《로세야의 소리》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신문들인 《우에스트 프랑스》, 《렉끼브》, TV방송도 공화국 선수들의 우승소식을 널리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박금일



얼마전 황해남도인민병원은 화상을 심하게 입은 한 남성이 실려왔다. 전신 35%에 3도화상을 입은 그는 빈사상태에 처해있었다. 그의 생명지표들은 소생불가능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소생하였으며 전망이 좋은 상태에서 회복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해병원에서는 9차례에 걸쳐 1 650m l의 수혈을 하였으며 2차에 걸쳐 2 300cm나 되는 피부부를 이식하였다. 2년 282명의 사람들이 환자에게 자진하여 자기의 피부를 바치였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남을 위해서는 자기의 피와 살점도 아낌없이 바치는 공화국인민들의 훌륭한 정신세계가 낳은 아름다운 소행이었다.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신문과 TV를 통해 이 사실

을 알게 된 한 해외동포는 이것은 사람들도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인 이끈 고국땅에서만 펼쳐수 있는 인간사랑의 서사시라고 하면서 아마 자본주의 사회같은 곳에서는 생명이 꺼진지도 오래일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좋은 말이다. 언제나 미국의 AP통신

을 살리기 위해 해병원에서는 9차례에 걸쳐 1 650m l의 수혈을 하였으며 2차에 걸쳐 2 300cm나 되는 피부부를 이식하였다. 2년 282명의 사람들이 환자에게 자진하여 자기의 피부를 바치였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남을 위해서는 자기의 피와 살점도 아낌없이 바치는 공화국인민들의 훌륭한 정신세계가 낳은 아름다운 소행이었다.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신문과 TV를 통해 이 사실

을 알게 된 한 해외동포는 이것은 사람들도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인 이끈 고국땅에서만 펼쳐수 있는 인간사랑의 서사시라고 하면서 아마 자본주의 사회같은 곳에서는 생명이 꺼진지도 오래일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좋은 말이다. 언제나 미국의 AP통신

을 살리기 위해 해병원에서는 9차례에 걸쳐 1 650m l의 수혈을 하였으며 2차에 걸쳐 2 300cm나 되는 피부부를 이식하였다. 2년 282명의 사람들이 환자에게 자진하여 자기의 피부를 바치였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남을 위해서는 자기의 피와 살점도 아낌없이 바치는 공화국인민들의 훌륭한 정신세계가 낳은 아름다운 소행이었다.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신문과 TV를 통해 이 사실

얼마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태양절경축 축하미술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람회는 순화미술원의 관록있는 70대, 80대의 로화가들이 창작한 60여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전람회장가운데 정중히 모셔져있는 유화 《수령님과 미술가》는 한 미술가의 작품을 지도해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작품으로서 관람자들의 가슴속에 주체미술발전의 쌍아울린 그이의 업적을 되새겨주었다.

유화 《만경대》(부교수, 인민미술가 박태진, 77살), 조선화 《4월의 회령고향집》(공훈예술가 김만섭, 72살), 유화 《백두산전지》(임무재, 73살)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도 절세위인들을 그리는 겨레의 절절한 마음을 감명

깊게 형성하고있었다. 전람회에는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반영한 조선화 《변민도 고향》(교수, 공훈예술가 김형철, 82살), 조선화 《따사로운 사랑의 불빛》(공훈예술가 박진영, 74살), 유화 《주체공업의 자랑 1만프레스》(박영희, 리경숙부부, 78살) 등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전람회에는 조선화 《묘향산 하바로》(공훈예술가 김만섭, 72살), 조선화 《이선남포포》(부교수, 인민에

미술가 리경남, 73살), 조선화 《눈속의 동백꽃》(공훈 예술가 리택림, 86살)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형상한 풍경화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중에서 관람자들의 눈길을 특별히 끈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화 《노한 송호의 파도》였다.

공훈예술가 문화춘(75살)이 창작한 이 작품은 거센 파도의 강렬한 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함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신념을 힘있게 보여주고있었다. 세찬 풍랑을 일으키며 밀려올수록 높고 낮은 파도들을 서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화면의 운동감을 나타내고있을뿐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화기법을 훌륭히 구연하고있는 작품은 이번 전람회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본시진 미술작품들을 돌아본 비전향장기수 김은환선생은 《전시된 그림들이 하나같이 훌륭하다. 늙으면 손도 떨리고 사색도 제한되는데 정말 세심하게 잘 그렸다. 특히 파도가 노호하는 형상

은 불수록 가슴이 후련하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AP통신사 기자 에리크 탈마퀴는 전람회를 돌아보고 미술작품들이 매우 훌륭하며 이 작품들을 보게 된것이 대단히 기쁘다고 감상에 자기의 소감을 밝혔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복판은 삶을 누려가는 로화가들의 지칠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이 나타내는 수많은 미술작품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과 모험을 생동한 화폭으로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공화국에서 올해에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자진하여 산골과 섬마을, 또는 일하기 힘든 부문들에서 진출하였다.

조국회해주교원대학의 교원학과를 졸업한 박춘심은 최전선섬마을의 교원으로 갈것을 결심하였다.

대학기간 공부를 잘한 그녀는 졸업후에 도소제지나 평양시의 어느 한 학교 교원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실지로 대학의 교원들한테서 대학에 떨어지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하나 그가 굳이 섬마을로 가려고 결심한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해의 최남단에 있는 장대도를 찾으신데 섬초소군인들의 자녀들을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특히 정

의 철길개건보수공사장으로 달려갔다.

교육성 차철남부원은 해마다 대학졸업생들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하고있으며 올해 전국의 교원양성대 학원만 고려해도 18개 사범대학, 교원대학에서 450여 명의 졸업생들이 최전선초소들과 산골군의 학교들, 힘든 공사장으로 탄원하였다고 말하였다.

한 재중동포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자기만 잘살고 잘 먹기 위해 대학에 사생결단으로 입학하고 졸업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데 한국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해서 묵묵히 바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이 매일같이 전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나라의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리계명

어려운 곳으로 자원진출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이끈 미술작품들

이런이들, 그들을 물에 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조국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기꺼이 부러가 될것을 결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공화국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홍영희, 리수연인산교원대학

취경에, 평성사범대학 리수경, 백옥심을 비롯하여 수많은 학생들은 섬마을 안겨주시는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TV로 보면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평양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수님의 마음속에 제일 가깝게 자리잡고있는 어린이들, 그들을 물에 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조국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기꺼이 부러가 될것을 결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공화국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홍영희, 리수연인산교원대학

이런이들, 그들을 물에 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조국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기꺼이 부러가 될것을 결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공화국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홍영희, 리수연인산교원대학

이런이들, 그들을 물에 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조국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기꺼이 부러가 될것을 결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공화국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홍영희, 리수연인산교원대학

이런이들, 그들을 물에 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조국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기꺼이 부러가 될것을 결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공화국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홍영희, 리수연인산교원대학

이런이들, 그들을 물에 있는 아이들 못지 않게 조국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우고싶은 충동을 안고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기꺼이 부러가 될것을 결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는 것이 공화국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홍영희, 리수연인산교원대학

해주시에 민속공원 새로 건설

황해남도에서 해주민속공원을 새로 꾸리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풍속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공원이 건설됨으로써 도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평양민속공원을 본보기로 하여 도의 특성에 맞는 민속공원 건설을 위한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인근골짜기 건설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많은 자재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대상물들의 기초공사와 함께 주변정리, 시공이 복잡한

많은 모형골짜기공사물 동시시공으로 벌려나갔다.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단군릉, 왕건왕릉을 비롯한 여러 왕릉들과 광개토태왕릉비, 첨성대, 거북신 등 선조들의 숭고와 재능을 보여주는 력사유적들을 생동하게 형성하였다.

연성대침비와 같은 도의 이름난 문화유적들을 이곳에

공원입구와 울타리도 력사유적인 해주성의 남문, 성벽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건설하여 민속공원의 면모를 한층 돋구어주며 구내에는 참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 수려한 풍치를 조성하였다.

력사요양마당, 야외무대도 번듯하게 꾸려진 이곳을 련일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고있다.

본사기자

청춘의 기백과 열정이 이끈 미술작품들

미술전람회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람회는 순화미술원의 관록있는 70대, 80대의 로화가들이 창작한 60여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전람회장가운데 정중히 모셔져있는 유화 《수령님과 미술가》는 한 미술가의 작품을 지도해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작품으로서 관람자들의 가슴속에 주체미술발전의 쌍아울린 그이의 업적을 되새겨주었다.

유화 《만경대》(부교수, 인민미술가 박태진, 77살), 조선화 《4월의 회령고향집》(공훈예술가 김만섭, 72살), 유화 《백두산전지》(임무재, 73살)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도 절세위인들을 그리는 겨레의 절절한 마음을 감명

깊게 형성하고있었다. 전람회에는 사회주의강성 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반영한 조선화 《변민도 고향》(교수, 공훈예술가 김형철, 82살), 조선화 《따사로운 사랑의 불빛》(공훈예술가 박진영, 74살), 유화 《주체공업의 자랑 1만프레스》(박영희, 리경숙부부, 78살) 등의 작품들도 전시되었다.

전람회에는 조선화 《묘향산 하바로》(공훈예술가 김만섭, 72살), 조선화 《이선남포포》(부교수, 인민에

미술가 리경남, 73살), 조선화 《눈속의 동백꽃》(공훈 예술가 리택림, 86살)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형상한 풍경화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전람회에 전시된 작품들중에서 관람자들의 눈길을 특별히 끈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화 《노한 송호의 파도》였다.

공훈예술가 문화춘(75살)이 창작한 이 작품은 거센 파도의 강렬한 형상을 통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함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신념을 힘있게 보여주고있었다. 세찬 풍랑을 일으키며 밀려올수록 높고 낮은 파도들을 서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화면의 운동감을 나타내고있을뿐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화기법을 훌륭히 구연하고있는 작품은 이번 전람회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본시진 미술작품들을 돌아본 비전향장기수 김은환선생은 《전시된 그림들이 하나같이 훌륭하다. 늙으면 손도 떨리고 사색도 제한되는데 정말 세심하게 잘 그렸다. 특히 파도가 노호하는 형상



↑ 조선화 《노한 송호의 파도》
← 조선화 《따사로운 사랑의 불빛》

얼마전 김형직사범대학은 문학부의 한 교실에서 이룬 모습이 펼쳐졌다. 《선생님, 박사학위를 받으신것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여 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스승에게 향기로운 꽃다발을 안겨주는 리남철, 오승미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열광마당은 존경의 마음이 담겨져있었다.

교원련회는 비록 길지 않지만 높은 실력과 뛰어난 강의술로 학부에서 뿐만아니라 대학적으로 소문난 30대의 녀박사 한미영선생도 미더운 눈길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동무들도 지식의 랍을 더 높여 쌓아선군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교정에 넘치는 따뜻한 정과 교양도덕기풍은 모두의 마음을 후덕게 하여주었다. 이렇듯 교원은 학생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맡아 나기 위중한 인재로 아끼고 키워주며 학생들은 또 그들대로 교원을 참다운 스승으로 존경하고 따르는것이 공화국의 교정예에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물리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

지금 남조선의 학교들에서는 교원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망탕 침을 뱉는 현상, 싸우하는 현상이 레사롭게 나타나고있으며 흥기를 들고 학생호상간에 죽일내기까지 하고있다. 지어는 교원들에게 칼과 총을 가지고 달려드는 망동도 드문하다고 한다.

언제인가 남조선신문 《동아일보》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이런 하수 있겠다. 학생은 교사에게 한대만 맞아도 신고한다고 난리이지만 반대의 경우 대다수 교사들은 아무 조치도 할수 없다. 고 지적했다.》

남조선에서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들에서도 강의 시간에 교원의 질문을 교원의 적으로 거절하거나 동문서답하는 현상, 교원을 헐뜯하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학생들 호상간에 흥기를 가지고 폭

인주의가 만연한 남조선사회에 이런 인간세계의 아름다운 도덕기풍이 존재할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초보적인 룰리야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남조선사회의 교육이라는것은 인제육성보다도 황금만능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약육강식의 생존원리 체현자들을 키워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학교들에서 배워주는 파묵들마다에 일관하게 관통되어있는것은 철저히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이다.

폐쇄적인 교육속에서 정신도덕적으로 빈곤한 오작품학생들이 생겨나있는 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스승에 대한 레의도 모르고 자기 동료들에 대한 우애심도 없는 이런 불건전한 도덕기풍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무슨 일을 특독히 할수 있겠는가.

공화국의 교정에 넘치는 건진하고 명망한 도덕적향기와 남조선사회의 교정에 서 풍기는 불건전한 도덕기풍은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대결케를 들이밀며 상관하지 말라는 학생이 있었다. 위협을 느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맞으면 창피해서 어디에 말

본사기자 리계명

본사기자 길복순

제 1 차 관광선 《황성》호에 의한 라선 - 금강산 국제관광단 금강산 탐승

제1차 관광선 《황성》호에 의한 라선-금강산국제관광단이 20일과 21일 금강산을 탐승하였다. 관광단성원들은 구룡연과 신계사, 삼일포, 해금강일대 등을 돌아보면서 금강산의 기묘한 봉우리들과 깎아지른듯 한 절벽들, 기암괴석들과 울창한 수림, 깊은 골짜기들의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21일 관광단은 금강산을 떠나갔다. 본사기자



후래삼배라는 말은 《술자리에 뒤늦게 참석하게 된 사람에게 연거퍼 석잔을 권한다.》는 우리 겨레의 고유한 술자리풍속을 한문투로 옮긴 말이다.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전해지고있는 술마시는 방법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뉘어지고있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 술을 마시며 자기 술잔에 마시고 싶은 분량만큼 제가 따라 마시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잔에 술을 따르고 마시는 방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마시고나서 그 잔을 옆사람에게 전해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시는 방법이다. 자기 스스로 술을 잔에 따라 마시는 《자작》방법은 주로 서유럽사람들속에서 풍속으로 굳어져왔고 자기 잔에 술을 따라놓고 마시는 《대작》은 동유럽이나 중국사람들속에서 관례로 되어있다. 잔을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 《수작》은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관습으로 전해지고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수작》이라는것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의미에서 술잔을 돌려가며 술을 권하는 관례가 없거나 미약한것이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단위 또는 일터중심으로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날을 잡아 한자리에 둘러앉아 상하가 격이없이 술잔 하나를 돌려가며 마시으로써 풍금을 터놓아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일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돌림술자리는 점차 《동심일체》를 다지는 의식이나 《신입》을 보이는 중

표로서 일종의 풍습으로 고착되게 되었다. 술잔을 주고받는 돌림술의 이와 같은 풍습으로부터 퍼져 못할 사정으로 술자리에 늦어서 참가하게 되는 경우 그를 꾸짖거나 박대하지 않고 약의없이 처벌을 주다는 의미에서 술잔을 돌려가며 술을 권하는 관례가 없거나 미약한것이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단위 또는 일터중심으로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날을 잡아 한자리에 둘러앉아 상하가 격이없이 술잔 하나를 돌려가며 마시으로써 풍금을 터놓아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일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돌림술자리는 점차 《동심일체》를 다지는 의식이나 《신입》을 보이는 중

우리 나라에서의 오곡재배

오곡이란 말 그대로 다섯가지의 알곡이라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벼, 보리, 콩, 기장, 조를 오곡으로 꼽아왔다. 보리대신 수수를 오곡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오곡에는 팥물질과 각종 비린니, 단백질, 탄수화물을 비롯하여 사람의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오곡을 재배하면서 음식문화를 꽃피워왔다. 오곡가운데서 선잠으로 곯는것은 벼이다. 우리나라에서 벼를 재배한 역사는 아주 오래다.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등에서 벼를 비롯한 오곡유적이 나왔다. 특히 남경유적

의 36호집자리를 비롯한 여러 집터들에서 드러난 탄화된 벼알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5000년전시기의 것으로 밝혀졌다. 오곡이 드러난 표대유적의 벼알 역시 지금으로부터 4500여년전시기의 재배종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민족의 벼재배역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보여준다. 콩은 벼 다음으로 중요한 오곡작물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콩유물이 나타난 대략적유적으로는 함경북도 회령 오동유적이다. 이 유적은 5000년전시기의 것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랜 콩관계유적이다.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이다. 압록강하구의 습지대

인재양성과 교육과학

현시대는 10년, 20년후의 장래를 예측하며 새로운 지식과 능력구조를 가진 인재, 고도 및 첨단과학기술과 그에 기초한 고도기술산업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낼것을 요구한다. 교육과학은 교육의 본질과 법칙, 원리와 방법을 연구해 명함으로써 인재양성의 방향과 방법을 밝혀 주고 인재양성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복무하는 과학들의 체계이다. 19세기 초 일반교육학의 출현으로 등장한 교육과학은 그 후 인재양성사업을 과학화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기초교육과학 및, 부분별교육과학, 응용 및 경제교육과학으로 분화되었다. 일반교육학을 비롯한 기초교육과학은 교육사업전반에 작용하는 기초적인 원리

와 교육목적과 교육체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과 관련한 원리적인 문제들을 연구해 명함으로써 교육사업의 총적방향과 방향을 밝혀주며 기타 교육과학들의 이론적기초로 복무한다. 초등 및 중등교육학, 고등교육학, 체육교육학, 군사교육학, 교육평가학, 교육철학, 교육경제학, 교육물리학, 교육정보기술학을 비롯한 경제 및 응용교육과학은 교육기초이론들을 교육실천에 응용하고 현대과학과 기술의 성과와 경험들을 교육과학연구와 교육실천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레를 귀중히 여기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레를 어기는것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기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하고 우수한 인 사레법이 있다. 들이나 나이가 아예인 사람에게 가벌계 머리를 약간 숙이거나 눈인사정도 하거나 웃사람들인 경우에는 머리를 깊이 숙여 레를 표시한다. 웃어른들에게 머리 숙여 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본사기자

꽃병의 꽃을 오래 피우려면

* 꽃병의 물을 자주 갈아주고 꺾은 부분이 썩지 않게 해야 한다.
*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기 전에 꺾은 부분을 1~2cm 정도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데운다.
* 꽃병에 꽂았던 꽃의 자를 0.5~1cm 길이로 잘라주기도 한다. 본사기자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맞으면 좋다

태양이 지평선너머로 사라진 때로부터 약 30분동안의 어둠과 함께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맞으면 좋다. 해를 때까지 빛을 받으면 심장병발작과 같은 질병을 방지하는데 리상적이다. 본사기자

선수들에게 유리한 붉은색복장

연구에 의하면 경기장에서 붉은색복장을 한 선수들이 심판원들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는 선수들의 복장색깔이 심판의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붉은색과 파란색의 선수복을 입은 선수들의 경기 기록 장면을 보여주면서 42명의 심판원들에게 판정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시 같은 심판원들에게 다른 경기장면을 보여주면서 2차 판정을 하도록 하였는데 사실 이 경기 장면은 1차 판정때와 출전하였던 선수들이 복장색깔만을 서로 바꾼 것이었다. 본사기자

자기를 찾은 사람 (3)

글 량 홍 일, 그림 김 윤 일

2

《아버지, 꼭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야 하겠지요?》
《아니요, 좀 피곤해서...》
《어머, 며칠 됐는데도 영 시원치 않구나.》
《어쩌겠니. 그렇다고 당장 무슨 뽕족한 수도 없지 않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 아무런 아직 오록이 성성한 이 예비가 두눈을 뻗고 있으면서 내 뒤바라질 줄 못하겠나. 좀 시간이 흐르면 그놈의 소고기도 잘 팔리게 되겠네. 기대와 너무도 어긋나는 말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의 소고기...》

《아버지,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난 아버지가 미국산 소고기를 팔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니, 꼭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걸 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에선 그래도 처지가 못되지 않느냐. 나도 요즘 생각이 복잡하다. 그렇다구 당장 별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아버지,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그만두고 다른걸...》

《아버지, 꼭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야 하겠지요?》
《아니요, 좀 피곤해서...》
《어머, 며칠 됐는데도 영 시원치 않구나.》
《어쩌겠니. 그렇다고 당장 무슨 뽕족한 수도 없지 않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 아무런 아직 오록이 성성한 이 예비가 두눈을 뻗고 있으면서 내 뒤바라질 줄 못하겠나. 좀 시간이 흐르면 그놈의 소고기도 잘 팔리게 되겠네. 기대와 너무도 어긋나는 말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의 소고기...》

《아버지, 꼭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야 하겠지요?》
《아니요, 좀 피곤해서...》
《어머, 며칠 됐는데도 영 시원치 않구나.》
《어쩌겠니. 그렇다고 당장 무슨 뽕족한 수도 없지 않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 아무런 아직 오록이 성성한 이 예비가 두눈을 뻗고 있으면서 내 뒤바라질 줄 못하겠나. 좀 시간이 흐르면 그놈의 소고기도 잘 팔리게 되겠네. 기대와 너무도 어긋나는 말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의 소고기...》

《아버지, 꼭 미국산 소고기를 팔아야 하겠지요?》
《아니요, 좀 피곤해서...》
《어머, 며칠 됐는데도 영 시원치 않구나.》
《어쩌겠니. 그렇다고 당장 무슨 뽕족한 수도 없지 않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 아무런 아직 오록이 성성한 이 예비가 두눈을 뻗고 있으면서 내 뒤바라질 줄 못하겠나. 좀 시간이 흐르면 그놈의 소고기도 잘 팔리게 되겠네. 기대와 너무도 어긋나는 말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의 소고기...》

